

문학번역에서 L1 번역과 L2 번역이 번역텍스트에 미치는 영향 –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영역본을 중심으로

김 순 영
(동국대-서울)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섬세하고 감각적인 언어와 자연에 대한 빼어난 서정적 묘사로 ‘애잔한 한국적 정서가 절정에 달한 작품¹⁾’이라 평가받는 대표적 한국 현대단편소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영역본 분석을 통해 L1번역과 L2번역이 번역텍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번역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 있어 바람직한 전략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36년 10월 <조광>에 발표된 『메밀꽃 필 무렵』은 이효석의 문학세계가 잘 드러난 대표적 작품으로, 주인공 허생원이 장돌뱅이 동료 조선달, 동이와 함

1) 최혜정, 「이효석 소설 연구」, 『목원국어국문학』 제 7집, 2005.

께 봉평장을 뒤로하고, 다음날 있을 대화장을 향해 가는 어느 여름 달밤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장이 파한 뒤의 어수선한 여름 장터, 장꾼들로 떠들썩한 객주집, 달빛 아래 메밀꽃이 하얗게 핀 개울가, 어슴푸레 달빛이 스며드는 물레방앗간 등 토속적이고 정감어린 장면들로 가득 찬 이 작품은 허생원과 그의 나귀사이에 오가는 정서적 융합, 젊은 장돌뱅이 동이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암시가 중심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한 편의 시를 연상시키는 뛰어난 묘사와 서정적 아름다움으로 1942년 36세의 나이에 요절한 이효석을 한국대표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다.

이효석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서정미가 특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꼽히는 『메밀꽃 필 무렵』은 그의 고향인 강원도 봉평에서 대화에 이르는 팔십 리 길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배경에 대한 묘사가 작품 전체의 서정적이고 시적인 분위기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독자들이 이 작품의 서정적 아름다움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언어 기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봉평에서 대화, 대화에서 체천으로 이어지는 산길로 표상되는 향토적 배경과 더불어 토속적 언어에 기반을 둔 정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작의 독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정서적 공감대가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원작의 독자와 번역본의 독자가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여기에 번역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원작이건 번역본이건 문학작품이 주는 효과는 그것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인지적으로 생성되는 맥락에 의한 것이지 반드시 현재의 상황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oase-Beier 26). 문학작품²⁾을 선택해 그 첫 장을 여는 순간부터 우리는 작가와 무언의 약속을 맺고 작가가 인도하는 허구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다. 그리고 그 대상이 원작이든 혹은 번역본이든 독자들은 텍스트가 제공하는 가상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문학적 경험에 빠져들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번역가가 독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번역본의 독자들에게 원작의 독자들이 경험한 것과 가장 근접한 문학

2) 문학작품에는 여러 장르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소설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적 경험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번역가의 번역언어가 모국어(L1)인지 비모국어(L2)인지에 따라 번역텍스트에 나타나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번역가가 L1으로 번역하는지 혹은 L2로 번역하는지에 따라 번역텍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메밀꽃 필 무렵』의 영어번역본 세 권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번역본은 번역가를 기준으로 각각 비모국어(L2)로의 번역, 제1언어로의 번역(L1), 모국어(L1) 및 비모국어(L2) 화자의 공동번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번역언어 방향성에 따른 번역텍스트 상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³⁾. 각 번역본의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번역언어 방향성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문학의 영어번역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토대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L1 및 L2 번역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번역언어의 방향성에 대한 전통적 입장은 번역가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마크(Newmak 3)는 그 스스로가 번역의 교과서라고 칭한 *Textbook of Translation*을 통해 “자신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어(language of habitual use)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확하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번역 방법”이라 주장하였으며, 마마리도우(Marmaridou 60)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번역언어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은유나 관용어의 번역인데, 이와 관련하여 베이커(Baker 64)는 “외국어로서 숙어나 관용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결코 모국어 화자의 능력에 필적할 수 없다. 외국어로 번역을 하는 대부분의 번역가들은 언제 어떻게 관용어를 활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모국어 화자들과 같은 민감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

3) 각 번역본별 번역언어 방향성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 이것은 비단 은유나 관용어 등의 특정표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 선택, 연어 사용, 텍스트의 문체 등 번역 전반에 두루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번역가의 번역언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 규정이 없으나, 해외의 경우 번역언어 방향성에 대한 조항이 직업윤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 번역가협회 직업윤리규정(The Code of Professional Ethics of the Translator's Guild of Great Britain)으로, 번역가의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번역가는 자신이 모국어 지식(native knowledge)을 가지고 있는 언어로만 번역해야 한다(예외적인 경우에는 제 2 언어가 포함될 수 있다). 모국어 지식이라 함은 언어를 말하고 쓰는 능력이 유창하여 생각의 표현이 구조적, 문법적, 관용적으로 바른 것을 의미한다.

(영국 번역가협회 직업윤리규정 4조 1항)⁴⁾

FIT-유럽 전문가 직업윤리 규정(Code of Professional Practice)⁵⁾ 2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번역가는 자신의 모국어, 자신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어, 또는 그와 동등한 정도의 능력이 입증된 언어로만 번역을 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번역언어 방향성에 있어 모국어로만 번역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로스먼(Grosman)은 모국어나 제 1언어로만 번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출발어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번역가의 이해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한 것이라 지적한다. 실제로 목표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번역가를 쉽게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역가의 번역언어 방향성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캠벨(Campbell)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언어로의 번역이 가능한 번역가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그래서 때로

4) www.iti.org.uk 참조.

5) www.fit-europe.org 참조.

는 (아마도 자주) 제 2언어로 번역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57).

캠벨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영어에서 한국어 방향으로 번역을 하는 모국어 화자 번역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번역언어의 방향성이 반대가 되는 경우, 즉,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언어조합을 갖춘 번역가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세계화의 영향과 그로 인해 비모국어인 영어로의 번역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한 스넬 혼비(Snell Hornby)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번역언어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모국어로의 번역만이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이상적인 견해만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번역가의 번역언어 방향성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L1 번역인지 L2 번역인지에 따라 그 결과물이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번역가의 번역언어가 L1인지 혹은 L2인지에 따라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텍스트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관찰해 보기로 하겠다.

3. 『메밀꽃 필 무렵』과 *The Buckwheat Season*

우리문학의 외국어번역이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밀꽃 필 무렵』은 꽤 여러 편의 영어 번역본이 있다. 한국문학선의 영역본, 온라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대략 다섯 종의 번역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저자와 출처가 명확한 세 권의 번역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세 권의 번역본을 편의상 TT1, TT2, TT3로 부르기로 하며, 그 각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TT1은 1969년 11월 1일자 『코리아 저널』에 *The Buckwheat Season*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게재되었으며, 동일 텍스트가 국제펜클럽한국본부(International P.E.N Korean Center)에서 1970년에 출간한 『한국현대단편희곡집(Modern Korean Short Stories and Plays)』에도 수록되어 있다. TT1의 번역가는 최해춘

으로 1927년 경남 양산에서 출생하였고, 동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동 대학 문과대 교수로 재직했다. 저서로 『한국 작품 英譯의 실제: 우리 소설을 통한 영작문』이 있으며, 번역의 이론 및 작품 영역에 따른 문제들을 다룬 몇 편의 논문⁶⁾이 있다. 그 외 더 이상의 자세한 인물정보는 입수하지 못하였으나 번역가의 모국어가 한국어이고 번역언어의 방향이 비모국어(L2)인 것으로 보는 데에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T2의 제목은 *The Buckwheat Season*이며, 1974년에 하와이 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Flowers of Fire: Twentieth-Century Korean Stories*에 처음 수록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에 하와이 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현대한국문학선집(Modern Korean Literature - An Anthology)』에 수록된 텍스트를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나 내용은 *Flowers of Fire: Twentieth-Century Korean Stories*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것이다. TT2의 번역가는 UCLA의 피터 리(Peter. H. Lee)교수⁷⁾로,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록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어를 그의 제1언어(L1) 혹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어(language of habitual use)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TT3의 제목은 *When the Buckwheat Blooms*이며, 1993년 「교토 저널」에 (Kyoto Journal) 23호에 처음 게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컬럼비아 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한국현대소설선집(Modern Korean Fiction - An Anthology)』에 수록된 텍스트를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며, 내용은 1993년 교토 저널에 게재된 것과 동일하다. TT3는 故 김종운 서울대 명예교수와 한국문학 번역 전문가인 브루스 폴튼(Bruce Fulton, University British Columbia)교수 공역으로, 모국어(L1) 및 비모국어(L2) 화자의 공동번역에 해당한다.

6) 「번역의 이론과 그 문제점」, 『동아논총 11』, 1974

「산대극과 그 영역에 따르는 문제점」, 『대학원논문집 3』, 1979

「印歐 고전극과 한국 고전극의 비교연구」, 『대학원논문집 1』, 1972

7) 1929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 소재의 세인트 토마스 대학에서 학사학위(1951), 예일대학교에서 석사학위(1953), 독일 뮌헨의 루드윅-막시밀리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1958) 취득. 이후 수년간 유럽 여러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UCLA의 아시아 언어 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http://www.humnet.ucla.edu/humnet/alc/faculty/lee.html> 참조.

3.1 『메밀꽃 필 무렵』의 영역본 비교⁸⁾

『메밀꽃 필 무렵』은 봉평에서 대화에 이르는 달밤의 산길을 무대로 하여 토속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를 풀어낸 작품이다. 허생원과 그의 나귀 사이에 오가는 정서적 융합, 허생원과 동이의 혈연관계에 대한 암시를 통해 혈연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보여주며, 이 작품의 주요 모티브가 되고 있는 ‘5일 장(場)’은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내야 하는 장돌뱅이 주인공의 운명을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각각의 영역본이 원작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1) 사용된 어휘 수의 측면에서, (2) 문화적 요소를 담은 비유적 표현의 측면에서 (3) 암시적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3.1.1 번역문의 어휘 수 비교

번역가의 번역언어 방향성을 기준으로 분류해보자면 TT1은 L2 번역가, TT2는 L1 번역가, TT3는 L1 및 L2 번역가의 공역이다. 번역문에 사용된 어휘 수만으로 텍스트의 특성을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나, L1 번역가의 경우에는 어휘 및 표현의 선택에 있어 TT의 자연스러움과 가독성에 더 무게를 두어 간결하면서도 구어체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할 것이므로 L2 번역에 비해 사용되는 어휘 수가 적을 것이라 가정하였으며, L2 번역가의 경우에는 L1 번역가에 비해 ST에 대한 충실성을 더 중시함으로써 ST에 가깝게 직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 L1 번역에 비해 사용 어휘 수가 많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L1 번역가와 L2 번역가가 사용하는 어휘 수에 있어 일관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 가정하고 그 수를 산정해 보았다. 지면관계상 텍스트 전체를 예시하기는 어려워 대표적 인 사례 몇 가지를 아래에 제시하기로 하겠다.

8) 번역본의 출간 시기에 따라 시대적 변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TT1과 TT2는 출간 시기에 있어 ‘시대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TT2에 비해 TT3가 후에 번역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어체적 표현이라든가, 사용된 어휘 수 측면에서 TT1과 TT2의 중간적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인보다는 번역가의 번역언어가 L1인지 L2인지, 혹은 공역인지에 따른 영향이 컸을 것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에서는 L1번역, L2번역, L1/L2 공역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사례 1)

[ST] 걱정두 팔자요 하는 듯이 뵈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칠 때,
 열결김에 따귀를 하나 갈겨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TT1] When his eyes met Tong-i's glowing eyes that were scrutinizing his face as if to say, "You are fated from birth to worry about everything," he could not resist an impulse to slap him on the cheek.

[TT2] "It's none of your business," Tong-i's bloodshot eyes seemed to retort. When he met the young man's gaze, Ho could not resist an impulse to slap his face.

[TT3] Tongi looked Ho straight in the eye. Mind your own business, he seemed to be saying. When the young man's animated eyes met his, Ho lashed Tongi across the cheek on impulses.

(사례 2)

[ST] 젊은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나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버무려 넘겼다.

[TT1] "They say that to an unlicked cub that sort of admonition serves as a remedy, you know," Cho Son-dal equivocated, and thus patched the matter up for the time being.

[TT2] "It's good medicine for a greenhorn like him," Cho cut in, trying to patch up the situation.

[TT3] "Young people need a dose of that now and then," said Cho in an attempt to smooth over the situation.

(사례 3)

[ST] 드팀전 장돌림을 시작한 지 이십 년이나 되어도 허 생원은 봉평 장을 빼는 적은 드물었다.

[TT1] Twenty years had elapsed since he first began making the rounds of the markets, but during this period it had been unusual for Ho Saeng-won to omit Pongp'ong Market.

[TT2] In his twenty years as a traveling vendor of dry goods, Ho had seldom missed the market days at Pongp'yong.

[TT3] In the two decades that Ho had been peddling dry goods at the

rural markets, he had rarely skipped Pongp'yong in his rounds.

위의 예시문에 제시된 각 번역본의 사례별 어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번역본의 어휘 수 비교⁹⁾

사례 1			사례 2			사례 3		
TT1	TT2	TT3	TT1	TT2	TT3	TT1	TT2	TT3
37개	28개	32개	30개	17개	20개	29개	20개	23개
100%	75.7%	86.4%	100%	56.6%	66.6%	100%	69%	79.3%

위 【표 1】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L2번역인 TT1에서 가장 많은 수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위에 예시한 사례에서뿐만 아니라 텍스트 전반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⁰⁾. 번역언어의 방향이 번역가의 L1인 TT2는 어휘 사용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예시로 든 사례문에서 보듯이 “It’s none of your business”이나 “cut in” 등과 같은 구어체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문장과 단락의 길이가 짧다. 그런가하면, L1 및 L2 번역가의 공역인 TT3는 어휘 수, 문장 길이 측면에서 모두 TT1보다는 적으면서 TT2에 비해서는 많아 L1과 L2 번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어휘 수를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L1 번역과 L2 번역, 그리고 L1 및 L2 번역가의 공역에서 보이는 차이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TT1에서는 예를 들어, “걱정도 팔자요.”라는 ST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 “You are fated from birth to worry about everything.”으로 직역에 가까운 표현방식을 택하는데 반해 TT2와 TT3에서는 “It’s none of your business.”와 “Mind your own business.” 등과 같이 보다 간결하고 구어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히 부분적인 예시이기는 하나 번역언어가 번역가의 L1인지 L2인지에 따라 번역문에 사용되는 어휘 수,

9) 어휘 비율은 번역문의 어휘 수가 가장 많은 TT1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치를 산정하였다.

10) 텍스트 전체의 어휘 수는 각각 TT1 4140개, TT2 3415개, TT3 3755개이다.

문장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3.1.2 비유적 표현의 번역 비교

이 작품 전반의 서정적이고 토속적인 느낌을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는 문화소를 내포한 비유적 표현들이다. 아래 예시를 통해 각 번역본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4)

[ST]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TT1] “....but how unsightly it is to see a fellow scarcely out of his teens drink and play nastily with a woman in the broad daylight.

[TT2] “What an ugly sight it is to see a fellow as young as you drinking and flirting with a woman while the sun is still up.

[TT3] What a disgraceful spectacle! “Still wet behind the ears, and here you are swilling booze and flirting with women in broad daylight,” he said, walking right up in front of Tongi.

예시문 4의 ST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이라는 표현은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이라는 의미의 비유적 표현으로 단순히 나이가 어린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혹은 ‘어린것이 감히’ 등과 같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본에서는 예시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TT1과 TT2는 ‘어리다’라는 의미 전달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TT3만이 ST와 같은 비유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TT1의 경우, ‘scarcely’를 통해 너무 어리다는 의미가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유적 이미지의 전달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L1 번역가에 의해 번역된 TT2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목표언어 표현으로 가독성은 높지만, 비유적 이미지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원문의 느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사례 5)

[ST] 어디서 주워 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네게도 아버 어머니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맘 좋겠다.

[TT1] As nondescript as you are, who came from no one knows where,
you too may have a father and mother. They will be happy to see
you behave like this, will they not?

[TT2] “I don't know where you come from, but you too must have a
father and mother. They'd be delighted to see you acting this way,
I'm sure!”

[TT3] “I don't know what kind of family you come from, you young
pup, but if your mom and dad could see this disgraceful behavior,
how pleased they would be!”

예시문 5의 ST에서 ‘어디서 주워 먹은 선머슴’은 출신, 혈통 등과 관련이 있는 비유적 표현이다. 그러나 각각의 TT에서 전달하고 있는 이미지는 서로 다르다. 먼저, TT1의 경우를 보면 ‘nondescript’란 외관상 별 특징이 없다는 의미로 ST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혈통이나 집안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TT1번역가의 번역언어가 모국어가 아님을 고려하였을 때, L2 화자로서 갖는 어휘 선택상의 어려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TT2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가독성은 높아졌으나 원문의 정확한 의미 전달과는 거리가 있다. TT2의 경우, L1번역가에 의해 번역된 것임을 감안하면 TT의 가독성에 더 무게중심을 둔 번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중심주제가 허생원과 동이의 혈연관계에 대한 암시적 묘사임을 상기한다면, TT2의 경우처럼 가독성을 고려하여 단순화된 번역은 독자들의 작품 이해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L1 및 L2번역가의 공역인 TT3은 ‘what kind of family’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ST와의 텍스트적 등가를 달성하는 동시에 가독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사례 6)

[ST]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TT1] Whenever a market day came at the intervals of five days, he
crossed from one town to another as sure as the moon in the sky.

[TT2] Since markets were held every five days, Ho traveled from one
town to another, constant as the moon in the sky.

[TT3] More regular than the moon, he tramped from one town to the next.

TT1은 ‘whenever’와 ‘닷새’를 주기로 거르지 않고 돌아오는 장날의 의미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이 역시 사례 5에서와 같이 번역가의 번역언어 방향이 L2이기 때문에 언어 선택상의 제약에서 생겨난 문제점일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또한, TT2와 TT3는 모두 가독성 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TT3에서 ‘5일장’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사례 7)

[ST] 젊은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나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버무려 넘겼다.

[TT1] “They say that to an unlicked cub that sort of admonition serves as a remedy, you know,” Cho Son-dal equivocated, and thus patched the matter up for the time being.

[TT2] “It’s good medicine for a greenhorn like him,” Cho cut in, trying to patch up the situation.

[TT3] “Young people need a dose of that now and then,” said Cho in an attempt to smooth over the situation.

예시문 7의 ST에서 ‘젊은 애들에게 약이 된다’고 할 때의 ‘약’은 ‘교훈’의 뜻을 담은 비유적 표현이다. TT1에서는 ‘admonition/remedy’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unlicked cub’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비유적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그러나 TT3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약화되었으며, TT2에서는 ‘약’을 ‘medicine’이라 표현함으로써 ‘교훈’이라는 비유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앞서의 예에서와 같이 L1 번역가에 의한 번역인 TT2는 가독성은 높으나 대신에 ST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비유적 의미가 상실된다는 문제점을 보인다.

3.1.3 암시적 정보 전달 측면에서의 비교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작품은 허생원과 그의 나귀 사이에 오가는 정서

적 융합, 젊은 장돌뱅이 동이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암시가 중심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중심서사가 번역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사례 8)

[ST] 반평생을 같이 지내 온 짐승이었다.

[TT1] The animal had been his companion through half his life.

[TT2] The animal had been Ho's companion for half his life.

[TT3] Ho had spent half his life with that animal.

예시문 8의 ST에서 이 짐승(허생원의 나귀)과 허생원은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만큼 허생원과 나귀 사이에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TT1과 TT2에서는 이를 ‘companion’으로 묘사함으로써 둘의 밀착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TT3에서는 단지 함께 지내온 시간만을 보여줄 뿐 허생원과 나귀의 관계의 밀착성에 대한 이미지는 생략되어 있다. 허생원과 동이의 관계에 대한 암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다.

(사례 9)

[ST]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TT1] He came up to Tong-I and immediately began to give him a good scolding. “I see you quite a dissolute fellow, but how unsightly it is to see a fellow scarcely out of his teens drink and play nastily with a woman in the broad daylight.

[TT2] “What an ugly sight it is to see a fellow as young as you drinking and flirting with a woman while the sun is still up. You go around disgracing the name of us traveling vendors, but you still want a share in our trade.”

[TT3] What a disgraceful spectacle! “Still wet behind the ears, and here you are swilling booze and flirting with women in broad daylight,” he said, walking right up in front of Tongi. “You go around giving us vendors a bad name, but still you want a share of our trade, it

seems.”

예시문 9의 ST에서 보듯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 ‘책망’ 등의 표현으로 미루어보아 허생원은 동이에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듯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TT1에서는 이러한 느낌을 살려 ‘give him a good scolding’, ‘a fellow scarcely out of his teens’로 표현함으로써 두 사람의 혈연관계에 대한 암시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TT2와 TT3에서는 TT1에 비해 가독성은 높으나 허생원과 동이의 관계를 읽어내기가 어렵다.

번역가의 번역언어 방향이 L1인 경우, 자연스럽게 유창한 목표언어 구사능력이 TT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ST의 미세한 느낌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TT1에서 보는 바와 같이 L2 번역이라 할 지라도 ST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ST의 암시적 의미전달에는 더욱 유리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3.2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이효석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서정미가 특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꼽히는 『메밀꽃 필 무렵』 영역본 세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번역가의 번역언어 방향성에 따른 번역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번역가의 번역언어 방향성 면에서 각각 L2 번역, L1 번역, L1 및 L2 번역가의 공역으로 이루어진 세 권의 번역본을 (1) 사용된 어휘 수의 측면에서, (2) 문화적 요소를 담은 비유적 표현의 측면에서 (3) 암시적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만 이 연구의 목적이 번역본의 품질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번역가의 번역언어 방향성에 따른 번역품질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다.

첫째, 사용된 어휘 및 문장의 길이 측면에서 보자면 L2 번역가가 가장 많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L1 및 L2 번역가의 공동번역과 L1 번역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번역가의 목표언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비유적 표현이나 관용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목표언어가 L2인 경우에는 가독성보다는 원본에 대한 충실성에 더 무게를 두게 되고, 또한 목표언어 구사능력에 있어서

도 어휘 및 표현의 선택에 있어 L1보다는 제한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둘째, 문화적 요소를 담은 비유적 표현의 측면에서 보자면, 번역가의 원본 이해능력이 높을수록 비유적 표현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며, 번역가의 목표언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원본에 대한 충실성보다는 가독성을 중시함으로써 오히려 원본의 비유적 이미지는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비유적 표현의 경우에는 문화적 요소가 작용하므로 원본에 대한 이해능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작품의 전체 주제와 관련된 암시적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 보자면, 원본에서 암시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나 느낌들이 목표언어로 전환되는데 있어 번역가의 번역언어 방향성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번역가의 번역언어 방향이 L2인 경우 직역에 가까운 표현으로 TT의 가독성 면에서는 취약함을 드러내지만, ST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ST의 암시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번역언어가 L1인 경우에는 TT에서 통용되는 간결하고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유적 표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암시적 이미지나 느낌 역시 원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하므로 L1번역에서는 가독성은 높은 대신 ST의 의미가 약화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4. 맺음말

일반적으로 번역가는 외국어보다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할 때 더 나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번역언어의 방향성이 모국어라고 해서 그 반대의 경우보다 반드시 그 결과가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번역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능력이나 가독성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문학번역에서는 번역가의 원문 이해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문학번역에서 목표텍스트의 가독성만을 중시하는 것은 자칫 원작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색깔을 중화시켜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번역가의 모국어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작의 이해능력이 반감될 소지가 있고, 외국어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독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번역가의 번역언어 방향이 각기 다른 세 권의 번역본을 분석해 본 결과 번역언어의 방향이 모국어라고 해서 그 반대의 경우보다 그 결과가 더 낮다거나, 번역언어가 모국어가 아니라고 해서 그 결과가 더 못하지 않음을 보게 되었다. 물론, 극히 제한된 규모의 분석이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문학의 외국어 번역에 있어 바람직한 번역언어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효석. 1977. 『메밀꽃 필 무렵』. 서울: 동서문화사.
 이효석. 1981. 『메밀꽃 필 무렵』. 서울: 금성출판사.
 이효석. 2007. 『이효석 단편선』. 서울: 문학과 지성사.
 최혜정. 2005. 「이효석 소설 연구」, 『목원국어국문학 제 7집』. 목원대 국문과 편집부.
 Baker, M. 1992. *In Other Wor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Boase-Beier, J. 2006. *Stylistic Approaches to Translation*. Manchester & Kinderhook: St. Jerome.
 Campbell, Stuart. 1998. *Translation into the second Language*. Harlow: Longman.
 Fulton, B. & Youngmin Kwon. 2005. *Modern Korean Fiction: An Anthology*. New York: Columbia.
 Grosman, Meta, Mira Kadric, Irena Kovacic, Mary Snell-Hornby (eds.). 2000. *Translation into Non-Mother Tongues in Professional Practise and Training*. Tublingen: Stauffenburg Verlag.
 Lee, Peter H. (ed.). 1990. *Modern Korean Literature: An Anthology*. Hawaii: Hawaii UP.
 Marmaridou, A.S.S. 1996. Directionality in translation. *Target*, 8(1), 49-73.
 Newmark, P.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London and

Singapore: Prentice Hall.

Snell-Hornby, M. 2000. 'McLanguage': The identity of English as an issue in translation today. In M. Grosman, M. Kadric, I. Kovacic & M. Snell-Hornby (eds.), *Translation into Non-mother tongues. In professional practice and training*. Tübingen: Stauffenburg Verlag.

The Korean P.E.N. 1970. *Modern Korean Short Stories and Plays*. Seoul: Dong-A.

[Abstract]

**The Impacts of L1/L2 Translators in Literary Translation:
An Analysis of Multiple Translations of *the Buckwheat Season***

Kim, Soonyoung
(Dongguk University-Seou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L1/L2 translators in literary translation. To assess these impacts I have analyzed three translations of *the Buckwheat Season* written by Hyo-seok Lee. In an attempt to mee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ree different translations were chosen: TT1 translated by a Korean national translating into L2, TT2 translated by a Korean-American translating into his L1, TT3 by co-translators, one of whom was a Korean national with Korean mother tongue and the other an American with English mother tongue. The three translations were analyzed in three aspects: First, the number of words used; second, translations of idiomatic expressions, third, delivery of implicit information.

The findings showed that TT1, translated into the translator's L2 used more words than the other translations while TT2, translated into the translator's L1 used the fewest words. This suggests that the more the translator is fluent in the language he/she is translating into, the better the readability of the text while the L2 translator seems to be more faithful to the source text. In terms of the translation of fixed/idiomatic expressions, the L1 translator tended to simplify the ST too often, resulting in a weakening of the implicit meaning of the ST. The co-translated version, in the meantime, stood in the middle. The analysis of textual features showed similar results as in the case of the translation of fixed/idiomatic expressions.

My argument is that the directionality of translation is important but i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translators should only translate into their mother tongue/L1. What is important in translation is not just readability/linguistic competence in the target language. Particularly in literary translation, a translator's understanding/comprehension of the source tex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roducing a good translation.

▶ Key Words: directionality in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ion, readability, translation into L1, translation into L2

김순영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부 조교수

kimsy@dongguk.edu

관심분야: 번역이론,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09년 10월 17일

심사완료일: 2009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15일